

2004년 대선, 부시 발목 잡는 부시-배성 책들

글 | 허선

200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은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민주진영의 정치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서 접가 역시 부시를 공격하는 책들(Bush-Bashing Books)로 가득하다. 부시-배성 책들은 보통 민주계 입장에서 공화당과 부시를 비난하는 경향이 주류인데, 그 중 전 공화당 출신 선거이론가 케빈 필립스가 부시집안의 비리를 파헤친 《미 권력의 세습 : 부시가家的 거짓, 탐욕 그리고 특권주의》(*American Dynasty : Aristocracy, Fortune, and the Politics of Deceit in the House of Bush*) (이하 《*American Dynasty*》)와 전 재무장관 폴 오닐의 진술을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를 비판한 론 서스카인드의 《충성의 대가 : 조지 W. 부시, 백악관, 그리고 폴 오닐의 교육》(*The Price of Loyalty : George W. Bush, the White House and the Education of Paul O'Neil*)가 단연 눈길을 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전 공화당 선거 이론가와 부시 행정부의 전 재무장관이 부시 집안의 비리를 파헤치고 현 정부의 내막에 대해 폭로했다는 점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 두 책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 오류 등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받은 부시진영을 한층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의 부시-배성 책들이 진보파 작가들의 '부시 행정부 비리 밝히기'였다면 《*American Dynasty*》는 공화당 출신의 케빈 필립스의 '부시 집안 비리 파헤치기'라는 점에서 다른 여느 책들과 차별된다. 예를 들어, 조 코난슨의 《*Big Lies*》, 알 프랭킨의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 폴리 아이빈스 《*Bushwhacked*》 등 그동안 출간된 부시-배성 책들은 민주계 진보파 칼럼니스트, 코멘테이터, 기자 등의 인물들이 나서서 부시행정부가 저지른 거짓말들, 비리, 악행 등 부시에 국한된 내용을 서술한 반면 《*American Dynasty*》는 과거 공화당 정치 분석가 케빈 필립스가 위키와 부시로 연결된 부시가 4대에 걸친 비리를 살살이 밝히고 있다. 저자 케빈 필립스는 1968년 공화당

1
《*The Price of Loyalty*》는 다른 부시-배성 책들과 비슷하게 부시 행정부의 비리를 밝히고 있지만, 전 재무장관 폴 오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임기기간 회의 자료들 그리고 국내외 정책 문건들을 첨부했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2
《*American Dynasty*》는 공화당 출신의 케빈 필립스의 '부시 집안 비리 파헤치기'라는 점에서 다른 여느 책들과 차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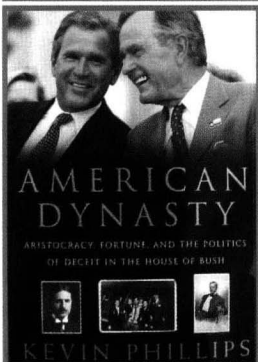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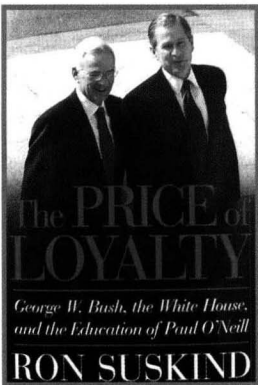
3 4
부시-배성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퍼블리셔스 위클리>.



닉슨 대선 캠프에서 선거와 투표 양식의 분석 책임자를 맡았고 리처드 닉슨의 대선에서 성공적으로 쓰인 《떠오르는 공화당의 신진세력》(*Emerging Republican Majority*)를 쓴 인물이다. 그 후 케빈 필립스는 미 정치 리서치협회 대표, <미 정치 리포트> 편집인 및 발행인을 거쳤다. 로널드 레이건 선거 직후엔 '공화당의 주요 선거이론가'로 인식되면서 1982년 <월 스트리트 저널>로부터 '신보수'라고 불리는 선벨트 *Sun Belt*를 창설하고 떠오르는 공화당의 신진세력 *Emerging Republican Majority*을 예측한 신보수진영 정치분석가로 묘사되기도 했다. 《*American Dynasty*》에서 저자는 미국은 세습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표본이 그 유명한 케네디가가가 아닌, 바로 부시가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시 집안 4세대가 어떻게 국가권력의 사다리를 올라탔으며,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현 조지 W. 부시의 증조부인 사무엘 부시와 조지 H. 위커는 월 스트리트, 무기 상인들, 중동의 지도자들 그리고 히틀러를 포함한 외국의 독재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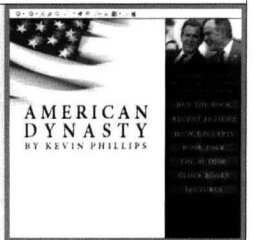
America

1
2
3
4



여 부와 권력을 축적했고, 그의 아버지 조지 H. W. 부시는 아이비리그라는 학벌과 유대관계를 통해 돈과 권력뿐 아니라 CIA, 에너지 산업, 그리고 군수산업에 이르는 연결고리를 획득하게 됐다. 그는 이를 토대로 부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다음 현 조지 W. 부시에게 권력을 세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맑고 깨끗한 메인주주 여름별장, 독립 기념일에 빛나는 눈빛,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가 주는 이미지에 길들여진 우매한 대중이 미국의 독립사상과 정면 대치되는 구식민지형 세습정치를 다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마침내, 저자는 이미 밝혀진 관계들과 명확히 연결된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을 내린다. 부시 집안은 체계적으로 그들의 재정적 사회적 제국 - 그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백악관을 장악하고 그리하여 미국의 민주주의 핵심을 파괴하고 있다고.

다음으로, 전 <월 스트리트 저널> 기자 론 서스카인드의 최신작 《The Price of Loyalty》는 다른 부시-배경 책들과 비슷하게 부시 행정부의 비리를 밝히고 있지만, 전 재무장관 폴 오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임기기간 회의 자료들 그리고 국내외의 정책 문건들을 첨부했다는 사실이 특징이다. 이 책의 증언자 폴 오닐과 부시의 관계는 오닐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Alcoa의 대표로 있을 때 더욱 돈독해졌다. 이는 Alcoa가 부시의 No. 3 후원자 텍사스 법률회사 Vinson & Elkins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였을 때, Vinson & Elkins는 주정부 환경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Alcoa가 매해 6만 톤 이상의 아황산가스 배출을 허용하도록 손 쓴 일이 있었다. 그 후 그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부시-체니 체제는 폴 오닐을 그들의 친근하고 오래된 친구이며 경험과 능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부시의 세금 감면(tax cuts)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던 오닐은 주식



시장이 두 번이나 녹아내리자 해임되었다.

한편 폴 오닐은 《The Price of Loyalty》를 통해 그의 마음이 오랜 친구보다는, 진실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폴 오닐은 2년 동안 그가 경험한 부시 행정부에 대해 말했을 뿐만 아니라 7,630개 목록의 스케줄과 대통령에게 쓴 메모, 방대한 리포트 등 1만9,000개의 내부 서류들을 저자 서스카인드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The Price of Loyalty》는 현 행정부의 사실적인 모습을 짐작케 한다. 우선, 폴 오닐은 부시에 대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친위대에 둘러싸인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고발하고 있다. 책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자유로운 생각의 교류나 공개토론과 같은 조직적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문제의 중요성보다는 이데올로기 도당들과 정치 보좌관들에 의해 지시되었고 대통령은 마치 거대한 힘 앞의 꼭두각시와도 같았다. 또한 내각 모임에서 대통령은 마치 귀머거리가 가득한 방의 장님처럼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앉아 있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언젠가 폴 오닐이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물 전공했고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merica

부시 대통령과 일대일 미팅을 가졌는데 오닐의 발표에 대해 부시는 자세한 질문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닉슨과 포드 대통령 밑에서 일한 오닐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라크 침공이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라는 폭로이다. 오닐에 의하면 사담 후세인 제거와 이라크 침략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때는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일 후였으며, 9·11 테러 사건 8개월 전에 그가 참석한 국가안전위원회 모임으로부터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현 부시행정부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폭로는 큰 관심을 불러온 동시에 한편으로는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다. CBS News <60 minutes>는 '부시는 이라크를 침략할 방법을 찾았었다? Bush sought 'Way' to invade Iraq?' 라는 제목 아래 폴 오닐과 저자 론 서스카인드를 인터뷰했다. 폴 오닐은 국가안전위원회에 참석한 첫날부터 사담은 위험인물이며 제거되어야 할 대상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요약보고서 아래 비밀이라고 적힌 메모를 보게 되는데 그 메모는 '사담 이후의 재건계획' 이었다. 저자는, 그들은 2001년 1월쯤 이라크 점령을 의논했으며, 그 계획은 평화유지군, 전쟁 범죄재판소 그리고 이라크유전에 대한 부의 분배가 구상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입수한 2001년 5월 5일자 '이라크 유전 계약에 관한 외국업체들'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의하면 이미 이라크 유전에 관심을 가진 30~40개국의 계약자들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화제와 논쟁은 두 책들을 나란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초판으로 12만 3,000부를 찍은 《American Dynasty》는 1월 마지막 주 <퍼블리셔스 위클리> 논픽션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한 뒤, 2월 셋째주 <뉴욕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The Price of Loyalty》는 1월 14일 출간 직후부터 선두를 달리는 대선후보처럼 판매에서도 앞서갔다. 출간 다음

날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반스앤노블에서 동시 2위에 올랐으며, Borders와 Waldenbooks와 같은 대형서점에서는 프론트 전시는 물론 주문을 2배로 늘리고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역신문 <Pittsburgh Post Gazette>는 폴 오닐이 전에 대표로 있었던 Alcoa의 고향,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독자들은 책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여러 반스앤노블 서점에서는 이미 매진되어 나중에 오라고 하고 있으며, 브래들리 북셀러의 한 책구입 책임자도 "여기선 주문이 쇠도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동안 7쇄 37만5,000부를 인쇄하고 1월 마지막 주 <퍼블리셔스 위클리> 논픽션 순위 2위를 차지한 《The Price of Loyalty》는 2월 셋째주 뉴욕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부시 집안이 저지른 비리와 세습정치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어리석음과 현 정부의 내막을 폭로한 두 권의 책은 2004년 대선을 앞둔 부시진영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족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